질병부담측정					번호: III - E - 4
제 목	국문	사인통계 보정방법에 따른 조기사망으로 인한 질병부담 비교			
	영문	Comparison on the estimated Burden of Disease due to premature deaths by two different adjusting methods for Cause-of-Death Statistic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장혜정			
	영문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질병부담측정	발 표 자	장혜정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3년 04월				

1. 연구목적

우리 나라의 사망원인 보고체계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질병부담 측정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사망신고체계에 의하여 사망의 전수 정보가 수집되기는 하나, 사망원인 정보의 정확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환', '원인불명',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기록된 원인은 추가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GBD(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팀에서는 미분류 사인인 R 코드를 다른 질환군에 가중치에 따라 재배분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BD 접근방법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실제 의무기록 표본조사에 의하여 드러난 사인결과에 의하여 보정한 질병부담을 비교하여, 사망률 보정방법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GBD 연구자들이 제안한 표준기대여명 상실년수(SEYLL)를 산출하였는데, SEYLL은 각 연령에서의 이상적인 기준으로서 표준기대여명을 설정하여 각 연령에서의 사망수에 표준기대여명을 곱한 후 모든 연령에 걸쳐 합해 산출하는 지표이다. 필요한 전제 조건들인 수명의 한계, 연령별 가중치의 적용여부, 미래 건강수준의 할인 여부와 할인율, 사회·경제적 집단별 가중치 적용 여부 등은 GBD 연구팀의 접근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사망원인 보정방법으로 우선, 사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불명확한 사망건수에 대하여 GBD 연구자들의 대분류 제1군 및 제2군에 재배분하는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질병부담을 추정하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2001년 연구기간 동안 대구광역시에 신고된 사망자 8,919건 중 비교적 사인이

명백한 사고 및 악성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형종합병원을 이용했던 사망자 589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사인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질환군별 사망원인을 재추정하여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던 시민 중 2000년도에 사망한 11,369건에 대하여 조기사망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SEYLL에 기초하여 산출한 결과는 121,743년이었다. 이중 남성 6,199건에 대한 부담은 77365년, 여성 5,170건에 대한 부담은 44,378년으로 남성의 부담이 월등히 높았다. GBD 연구팀의 보정방

법을 이용한 질환군별 부담 추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89명의 대형 종합병원을 이용한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는데, 46%인 269명의 사망건수에서 실제 사인이 사망신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환'으로 기록된 53건의 사망 중 83%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상'으로 기록된 26건의 사망 중 88%를, '심폐기능 정지'로 기록된 68건의 사망 중 87%의 사인을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사인에 의하여 SEYLL을 추정한 결과는 질환군별로 유의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4. 고찰

그동안 사인통계의 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고 이에 따라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나, 사인기재의 정확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의 개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국민, 인구동태신고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인 등 관련자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여하는 의사의 사인기재방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준 이상으로 사인통계의 정확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인을 기재하는 의사의 관심유도 및 의식변화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장례문화와 관련된 제도 및 국민의식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